

A p p r o v e d W o r k m e n A r e N o t A s h a m e d

Awana 칼럼

우는 자들로 함께 올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로마서 12:15)



한국어와나 대표
이중국 목사

일본 열도가 140년 만의 대지진과 원전 방사능 누출로 인해 혼란과 위기를 당하고 있다. 많은 나라는 자국민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고 어려움에 처한 일본을 돕기 위해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인접국인 우리나라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인명 구조단을 파견하고 일본을 위해 전 국민적인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모금이 얼마나 활발한지 마치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인양 그 금액의 크기나 모여지는 속도가 가히 놀랄만하다. 한국은 일본과 역사적으로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다. 또한 영토 문제로 많이 마음이 상해 있다. 그런 배경에도 한국은 일본을 위해 우리의 사랑을 보이기에 주저함이 없는 듯하다.

일본의 어려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고민하게 된다. 민족의 아픈 역사를 생각하면 "너희도 어려움을 당하니 좋으냐?"라고 묻고 싶은 마음 저편의 속 좁은 나를 발견하게 된다. 또한 일부 교회들에게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심판론에 대해서도 조금은 동의의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다. 상대가 가해자든 내가 가해자든 아니면 자연재해든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은 다 아픈 것이다. 아픔이 되풀이하는 악순환은 이제 끊어야 한다. 자연의 힘 앞에 무기력한 인간은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 상대를 괴롭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론은 더욱 조심해서 말해야 한다. 예수님 시대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사람들이 죽었던 사건이 있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들이 죄가 많아서 벌을 받아 죽었다고 생각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들의 죄가 너희보다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눅 13:4-5), 그러면서 경고하셨다.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나 망한다고 하셨다. 일본이 저지른 죄는 크고 한국이 저지른 죄는 작은가? 죄로 멸망해야 한다면 아마 한국도 결코 안전한 곳은 아닐 것이다.

일본의 위기 사건을 보면서 나는 두 가지를 생각한다. 하나는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이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환란에 대비하는 나의 믿음은 안전한가? 갑작스럽게 닥쳐올 수 있는 위기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짐의 슬픔을 제외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스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또한 어려움을 당한 일본인들을 향해 함께 울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지금 위로가 필요하다. 하나님도 일본의 어려움에 아파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가 사랑을 전하며 친구가 되어주어야 한다. 지금은 어떤 조언보다 함께 울어주는 일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이번 일로 인하여 어와나 많은 단원들과 교사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더욱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또한 우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의 팔과 다리가 되어 예수님의 심장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게 되기를 소망한다.

